

목표달리다



군산, 나태주 시인 인문학콘서트

꽃사신 나태주 시인의 인문학콘서트가 오늘 오후 2시 군산시민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에도 공주문화원 원장 충남문화원연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주에서 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시 '꽃'은 '오래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간결한 시로, 강한 울림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주며 25년간 가장 사랑받는 광화문 교보문고 글판 1위로 뽑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장애너지, 군장애 발전기금 전달

군장애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가 군장애대학교(총장 이승우)에 대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군장애너지(주)는 군산지방산업단지 내 기업에 양질의 증기를 공급하고, 최첨단·고효율의 공해방지 시설을 바탕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의 선두기업으로 군산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인재는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성장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군장애대학교에서 이를 담당해 주시는 것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삼양식품 익산공장, 장학금 기탁

삼양식품(주)익산공장(공장장 오영탁)이 지난 19일 익산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달라며 350만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오영탁 익산공장장은 "직업인들이 모은 성금으로 저소득층가구 청소년 중 학업성적은 좋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 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가구가 많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 익산공장은 매년 행복나눔마켓·뱅크를 물품 후원하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고군산군도

관광 편의시설 확충 총력

군산시, 사업비 61억 투입 인프라 대폭 확충 방침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해소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무너져 구간까지 부분개통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주차장을 비롯한 화장실 등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무너져 회차로 인근에는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신시도 몽돌해수욕장과

무너져 회차로 지점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중에 있으며 무너져도 임시주차장이 조성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추가 지원 및 시비를 포함 총 6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선유도에 해수욕장 종합관광안내센터와 현대식 샤워장이 포함된 화장실 2동, 망주봉 수변공원 조성과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시도에는 몽돌해변의 조약돌을 형

상화한 소공원 조성과 지역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포토존을 만들 예정이며, 무너져는 염전을 형상화하는 소공원 및 포토존을, 장지도는 고군산 해변이를 형상화하는 소공원 및 포토존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시도와 무너져 선유도 등에 관광객이 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명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근대역사박물관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하고 군산과 인근 시군을 연합한 투트랙 관광 광역화로 2017년에는 300만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국가산단,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착공

오피스텔 등 259세대 주택 보급·주차장·근린생활·판매시설 들어서

정현을 익산시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인 익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이달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익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익산시 동서로 456 일원에 2030년까지 4,963억원이 투자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익산센트럴파크, 국제컨벤션호텔, 업종고도화센터, 안전보호용복합 제품산업클러스터, 공동물류센터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된 국가산단이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전반에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센트럴파크 복합개발사업은 오피스텔(26층, 136세대), 도시형생활주택(24층, 123세대)로 총259세대의 주택이 보급될 계획이며 지하(1~2층)에 주차장(407대), 지상(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공되면 관내 1,200여 제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되어 개별기업의 기숙사 확보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성공은 익산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산단근로자의 수요를 위한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공사 '순항'

사업비 35억8000만원 투입 내년 6월 준공 목표

군산시자원봉사센터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자원봉사센터는 약 82㎡(25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에 사무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육, 상담 회의장은 물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작업공간 등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산시는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원봉사센터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무공간, 작업공간, 교육공간 등을 갖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게 됐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총 사업비 35억8000만원을 투입, 문화동에 연면적 1,393.9㎡,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되며 올해 6월 착공해 현재 40%의 공정을 완료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신축 건물 1층에는 자원봉사 등록,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조리실, 김장공간, 재활용매장이 들어서고 봉사단체의 회의나 활동을 위한 사랑방이 설치된다. 2층에는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장과 교육실, 강당 등이 들어서게 돼 복지, 교육, 문화의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우리학교 출신 6.25전쟁 호국영웅 알리기 군산상고 교정에 추모비·명비 건립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우리학교 출신 호국영웅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역전의 명수라 불리는 군산상고등학교 교정에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추모비와 학도의용군 명비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군산상고등학교 출신 6.25전쟁 호국영웅 추모비와 학도의용군 전사자 66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비는 약 120㎡부지에 총 사업비 1억 3천만을 들여 건립됐다.

중앙에는 높이 3.3M의 호국영웅 추모비가 조성되고, 전사자 이름과 추모한시가 새겨진 명비와 학도의용군 참전내용·의의가 새겨진 메모리얼 벽이 비상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6.25전쟁 호국영웅의 진취적 기상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학도의용군이 전사한 역사적인 곳인 군산지역은 6.25전쟁 당시 약 1,000여명의 학도의용군이 참전하여 약 230여명

의 학도병이 전사했고, 군산상고등학교는 군산중·고등학교(97명)와 더불어 많은 학도병 참전자가 전사했다.

국가보훈처 군산상고 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 업적과 뜻을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추모비를 건립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1시경 군산상고등학교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 추모비 제막에는 모교 출신 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육군5사단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의원,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테이프 커팅, 감사패 수여, 기념사, 헌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공직비리 사전 차단

익산시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익산시는 전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지만 전국 시 단위 평균 7.53점을 넘지 못하고 52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금품·향음 요구 및 수수 시 금액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와 부조리신고실을 운영하여 민원 부당 반례행위, 비리관련 고발사항, 불친절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 엄중 문책한다.

더불어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명예감사관을 감사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 부진사항을 개선한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삼성재단 '나눔과 꿈' 공모사업 선정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정열)이 삼성재단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4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나눔과 꿈' 공모사업은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나눔 실천으로 더 행복한 세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환경·문화·글로벌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1045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51개 기

관을 선정했다.

나운복지관은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지원이 열악한 지역이동센터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대안교육으로 아동의 주체적 성장, 부모와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아동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painting, buildings, and text: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꿈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